

이오플로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 글로벌 제약사들과 온라인 미팅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발굴의 기회로 활용

[2020-12-23]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가 국내 의료기기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1에 공식 초청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는 미국 투자 은행 JP모건 체이스 앤 컴퍼니가 매년 1월 50여개 나라, 1,500여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초청해 신약 연구개발 성과와 현황을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다만,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대형 제약사나 신약 개발 기업이 주로 초청을 받았으며, 의료기기 업체로는 이례적으로 이오플로우가 초청을 받았다. 이는 이오플로우가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지난 9월 상장한 이오플로우는 해외에서의 높은 관심으로, 외국계 투자자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23일 현재 6%가 넘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이오플로우는 1형 당뇨병인에 대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오패치에 대해 국내외 상용화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웨어러블 인공췌장 개발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김재진 이오플로우는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 초청은 이오플로우의 제품과 기술력에 대해 해외의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라며 "디지털 헬스케어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인데 이오플로우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춘 코넥티드 웨어러블 솔루션으로서의 완성도 높은 인프라를 이미 다 갖추고 있어서, 이번 참석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와 당뇨 부문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 자료문의

이오플로우 연민욱 부장 / Tel: 031-724-0241 / e-mail: ir@eoflow.com